

<b>주가</b>	<b>환율</b>	<b>금리</b>
+11.08 1,422.55 (코스피지수)	-0.40 930.40원 (원/달러)	+0.02 4.82%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617.19 (+4.26)	
다우(28일)	12,136.45 (+14.74)	
나스닥(28일)	2,412.61 (+6.69)	
닛케이	16,076.20 (+220.94)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6.15엔 (+0.02)	
유로 달러 환율	1.3191달러 (-0.42)	
3년만기 회사채	5.16% (+0.02)	
클레리	4.46% (-0.01)	

## ‘아파트 분양가 자문위’ 발족

광산구 광주지역 최초... 변호사 등 10명

광주 광산구가 광주지역 최초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광산구는 29일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토목기술사, 건축사, 대학교수, 관계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를 발족시켰다. 자문위는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 인근지역의 주택 매매가격, 택지비 등 원가 내역, 판매자료 등을 근거로 분양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자문위는 또 다음달 초 회의를 갖고 최근 광산구 수완지구에 증대형 아파트 분양을 추진중인 S종합건설에 대한 자문을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공공택지 내에 짓는 전용면적 85㎡(25.7평)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에 대해 일선 지자체에서 자문위원회를 열 수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전남농협, 농업인 권익보호 나서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는 농업인들의 권익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보호사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은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협약을 체결, 10여년 동안 현지 상담과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특히 피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 농협이 직접 사업자에 통보해 피해구제나 합의를 권고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과 그 후속조치 등 모든 절차를 대리하고 있다. 전남본부는 10여년 동안 사업성과가 컸다고 판단, 내년에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 임직원 대상으로 소비자보호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 광주·전남 주택분 중부세 대상자 살펴보니

# 1,300명... 대부분 수도권 집 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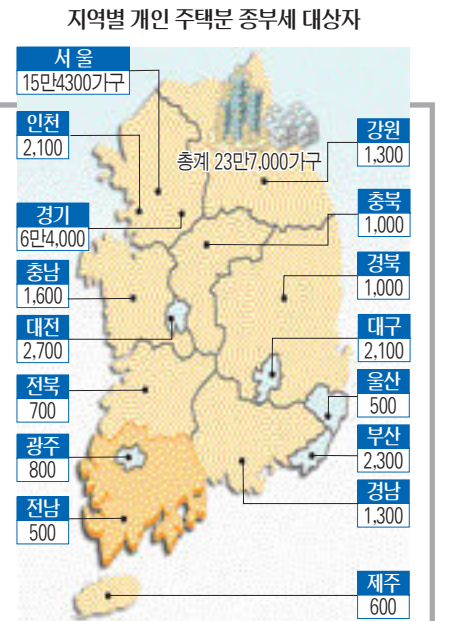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중부세) 과세기준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 토지분을 제외한 주택분 대상에 대한 중부세 대상자는 얼마나 될까. 국세청이 지난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800가구, 전남 500가구로 1천300가구에 달한다. 이는 전국 23만 7천가구의 0.55%에 해당한다. 전북 700가구의 0.84%로 집계됐다. 그러나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 중부세 과세기준을 넘긴 단독건물(기숙사 용도건물을 제외한 기업의 사옥 등)은 56동에 불과했을 뿐, 아파트는 한 곳도 없었다.

## 광주·전남엔 時價 6억 넘은 아파트 한채도 없어

광주의 최고가 아파트는 남구 봉선동 포스코 더샵(64평형)이 4억9천만~5억원, 전남은 순천시 연향동 대주파크빌(55평형)이 2억4천400만~2억5천만원(이하 국민은행, 부동산114 부동산시세)이었다. 이들 아파트 가격도 일반 거래가여서, 공시가격을 적용할 경우 중부세 과세기준과는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주택분 중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수도권 집을 소유하고 주소지만 이 지역에 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시말해 지역내 집값이 올라서 아니라 서울·경기에서 이사는 사람들이 수도권 기준 아파트를 팔지 않고 소유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자식교육을 위해 오래 전에 구입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탓도 있었다. A모(56)씨는 “10년전 서울로 유학한 자식을 학업을 위해 30여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중부세를 물게 됐다”면서 “투기목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을 내라니, 너무 억울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다 5년전 가족과 함께 광주 지사로 이사는 B모씨(45)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B씨는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고, 광주에 내려와 새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두 채의 아파트를 합쳐 6억원의 과세기준을 넘겨 중부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한편 주택분 전국 과세대상은 23만7천가구였으며, 이중 서울·경기지역이 21만8천300가구로 전국의 92.1%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대전(2천700가구·1.14%)이 부산(2천300가구·0.97%)보다 많았는데, 이는 서남부권과 행정수도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비가



부동산 투자로 이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어 인천·대구(각 2천100가구·0.88%), 충남(1천600가구·0.67%), 강원·경남(각 1천300가구·0.55%), 충북·경북(각 1천100가구·0.42%), 광주(800가구·0.34%), 전북(700가구·0.29%), 제주(600가구·0.25%), 울산·전남(각 500가구·0.21%) 순이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29일 광주디자인센터에서 열린 '전남지역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참가자들이 출품업체 관련자로부터 신제품 레저선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전남 우수 중소기업 제품 다모였네

### 경제인협 투자유치 나서

전남지역경제인협회가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광주디자인센터에서 '전남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략 설명회 및 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전남지역 유망중소기업 80개사가 참여, 우수제품 전시와 함께 대기업 및 유통업체 구매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판매전략 설명회를 갖는다.

전시장은 ▲우수제품관=유망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 ▲신제품관=참가업체 가운데 우수신제품 전시 ▲전남도 특산품관=전남산 고품질쌀 등 우수브랜드 홍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최측 관계자는 “전남지역 유망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 판로개척을 지원해 적극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전남이라는 이미지를 창출, 전남지역에 대한 대기업과 우수중소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백화점 ‘겨울 세일’

### 내일부터 일제히 돌입

백화점들이 다음달 1일부터 열흘간 겨울 바겐세일에 들어간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각 백화점의 세일 참여율은 75~80%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소폭 상승했으며 할인율은 10~30% 선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알파카 코트, 퍼트리밍 패딩, 남성순모정장 등 상품군별 히트 예상 아이템을 선정해 골든벨 상품전과 고급 수입소재를 한정수량으로 기획한 프리미엄 상품전 등 다채로운 행사

를 진행한다. 광주신세계는 1일부터 10일까지 해외 세일 특상품전을 열고 인기 브랜드 상품을 최대 50% 할인해 한정 판매한다. 현대백화점은 남성 및 여성류의 외투류 상품을 중심으로 한 이월 및 기획 상품전의 규모를 지난해보다 배로 늘렸다. 각 백화점은 이와함께 세일 기간에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자사카드 포인트(롯데), 문화공연티켓(신세계), 주유상품권 및 해외여행상품권(현대)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광주·전남 10월 생산·소비 ‘반짝 호조’

추석 연휴기간을 포함한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의 생산과 소비 활동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개선되는 등 ‘반짝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광주·전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추석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크게 줄었음에도 광주·전남의 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각각 7.2%, 5.2% 증가했다. 광주는 자동차 및 전자제품 관련 생산

이 전년 동월보다 각각 24.1%, 6.7%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생산동향 호조를 이끌었다. 전남은 화학 및 조립금속 관련 생산이 전년 동월보다 각각 18.7%, 42.8% 늘어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광주·전남은 또 소비활동에서도 계절적인 호조를 보였다. 광주의 지난달 대형소매점 판매지수는 136.6으로 전년 동월과 전월보다 각각 12.7%, 9.9% 높아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매일밤 8시부터 쏠! 쏠! 쏠! 애들은가라!!

부강천국 100%

방실이 오늘출연

설운도 12월 7, 8일

광주상무나이트

(상무지구 롯데마트 앞)